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의과대학 대외협력실
	김정헌 전화: 02-740-8890, 이메일: 201927919@snu.ac.kr

배포일: 2023.11.6.(월)

의과대학 지역의료혁신센터, '경북 뇌졸중 환자 전주기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연구'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

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개발원 산하 지역의료혁신센터(소장 강대회)는 경북 지역 뇌졸중 환자 전주기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개발 및 적용 연구 추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료혁신센터, 한국원격의료학회(회장 박현애), 대한 뇌졸중학회(이사장 배희준), 에스포항병원(병원장 권흠대), 포항성모병원(병원장 최순호), 포항세명기독병원(병원장 한동선), 경상북도 소방본부(본부장 이영팔), 포항시(시장 이강덕), (주)씨어스테크놀로지(대표이사 이영신)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(MOU)을 11월 2일(목) 체결하였다.

□ 이번 업무협약은 포항 지역 급성기 뇌졸중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,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효과적인 응급 이송체계 구축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, 지역 소방서와 거점병원, 행정·지원기관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뇌졸중 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은 물론, 지역 주도의 선도적인 실증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.

□ 행사를 주관한 지역의료혁신센터 소장이자, 경상북도·포항시 바이오헬스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강대회 교수(의대 예방의학교실)는 “디지털 의료기술을 이용해

서 지역주민의 맞춤형 건강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,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□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협약주체 기관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뇌졸중 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고, 포항시를 중심으로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도입의 효과성 평가 등을 토대로 향후 중앙부처와 연계한 전국적인 실증모델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.